

“스타케미칼 노사 최종 합의 환영”

조계종 노동위, 7일 성명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는 7월 7일 스타케미칼(구 한국합섬) 노사 합의의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위는 “스타케미칼은 모기업 스타플렉스 흑자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일방적 폐업을 통해 노동자들을 정리하고 했다. 회사방침에 따라 노동자 29명이 강제 해고당했다”며 “자본 공장은 공장을 팔아버리면 그만이지만 노동자들에게 공장은 소중한 가족,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일난했다.

이어 노동위는 “스타케미칼 뿐만 아니라 콜트콜텍, 기흥전자 등도 공장과 설비를 이익에 따라 팔아치우고 고용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이었다”며 “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노동자들은 방해자에 불과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몇 년이고 길거리에서 고용보장과 ‘떡볶자본’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책망했다.

아울러 이번 노사 합의에 대해서는 “406일의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공장을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싸운 노동자들의 승리”라며 “노동자는 자분이 필요할 때만 쓰다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만 천하에 알린 커다란 계기”라고 환영했다.

박익를 기자

아베 비판 지식인, ‘2015 만해대상’ 받는다

만해선양회, 7월 5일 만해 대상 수상자 발표

만해대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는 7월 5일 제19회 만해대상 수상자로 미국 역사학자인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 등 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만해평화대상에는 알렉시스 더든 교수가, 만해실천대상에는 히말라야 빈민구제활동가인 청천 스님과 발달장애인 공동체 무지개공동회(대표 천노엘)가 각각 선정됐다. 만해문예대상에는 가야금 명인 황병기 씨와 정현종 시인,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등 3명이 받는다.

평화대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더든 교수(46, 미 코네티컷대 역사학 교수)는 2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과 중군위안부에 대한 책임 회피를 질타하는 학자들의 성명을 주도한데 이어 5월에도 세계 역사학자 187명의 집단성명을 모아 내는 등 동북아 과거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시카고대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더든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독도,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어 다오위다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 열도 분쟁에 얽힌 역사적 실체와 국제조약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실천대상 수상자인 청천 스님(62, 히말라야 구호가)은 20여 년간 매년 히말라야 오지를 다니며 빈민에게 약품과 생활필수품 등을 전해주는 봉사활동을 이어나 공로를 인정받았다.

1953년 전북 김제시에서 태어난 스님은 처음에는 교사가 되려 교육대학(전주교대)에 다녔다. 그러나 10월 유신에 연루돼 12월 자퇴하고 1973년에는 가톨릭 신부가 되려 대건신학대를 다녔다. 가톨릭신부 수업을 받던 중 인생에 대한 의문이 생겨 송광사로 출가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에게 1978년 사미계를, 1979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생긴 것은 1987년 5월엔 동남아시아로 불교 순례길에서였다. 인도에서 가톨릭 테사 수녀를 만났는데 이어 그 해 8월 1일 히말라야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당시 35살이었던 그는 히말라야 기슭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달라이 라마의 제자가 되어 인도에 정착한 이후 그곳에서만 27년간 수행해오고 있다. 그는 조계종 소속 승려이고, 달라이 라마



알렉시스 더든 교수



청천 스님



무지개 공동회(천노엘 신부)



황병기 교수



신영복 교수



정현종 시인

위안부 문제 비판한 더든 교수 평화 부문 실천 부문에는 청천 스님, 무지개 공동회에 부문 신영복, 황병기, 정현종 선정돼 오는 8월 12일 만해 축전 기간 중 시상식

의 제자로서 티베트불교 수행자이지만, 히말라야 오지인들에게 ‘산타 명크’(산타클로스 스님)로 불리고 있다.

실천대상 수상단체인 무지개공동회는 아일랜드 출신 천노엘 신부가 만든 발달장애인 공동체로, 광주 시내 아파트 6곳에 위치한 그룹홈과 복지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무지개공동회 대표인 천 신부는 장애인에 의해 한 일로 상을 받는 것을 극도로 거

부한다. 1990년대부터 여러 차례 장애인단체, 인권단체 등에서 상을 수여하려 했으나 “나는 그들과 친구”라며 수상을 거부했다. 2014년 포스코청암상도 무지개공동회 이름으로 받았다.

문예대상엔 선정된 신영복 교수(74,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저술과 강연 등을 통해 인간과 생명, 평화와 공존의 참 의미를 전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그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책이다.

문예대상 수상자인 황병기(79, 이화여대 명예교수) 교수는 종학교 때 처음 접한 가야금을 평생의 업(業)으로 삼아 명인의 경지에 이른 우리 창작음악의 1세대다.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교수로 있다가 2001년 정년퇴임했고,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을 지냈다.

문예대상 수상자인 정현종(76) 시인은 1965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50년 동안 한국 시의 문단과 감각에 신생의 탄력을 부여해온 한국 문단의 대표적 시인이다. 정현종 시인은 그 특유의 철학적 사색과 섬세한 감각으로 독자적인 시세계를 형성해왔다.

한편, 시상식은 만해축전 기간인 8월 12일 오후 2시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은사역’ 개신교 판죽 결국 무위로 마무리

서울지법 5일 가처분 신청 기각

지난 3월 개통한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에 대한 개신교계의 역명사 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7월 5일 한국교회연합(한국교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봉은사역명 사용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은 행정정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면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가처분을 낸 것으로 본다 해도 결론은 같다”며 “상호권 등 주장하는 권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구제는 행정소송절차를 통하게 돼 있으므로 한국교회연합의 서울시의 행정 조치에 대해 민사상의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노덕현 기자

템플스테이, 보호관찰자 힐링 도와

문화사업단·법무부 업무협약 “재범 방지 모범 사례 기대” 범주사도 충남교육청과 MOU

템플스테이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신 치유와 힐링 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7월 9일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아 회복을 도모하고 심신 치유에 기여하기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키로 협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호관찰 대상자 및 보호관찰 청소년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법무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그간 일부 보호관찰소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 오던 템플스테이를 보호관찰 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1박 2일 가족 템플스테이로 전환, 전국 단위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오광수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부처와 종교 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모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공적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법무부는 7월 9일 보호관찰대상자 템플스테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 복귀와 심신순화에 템플스테이가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간직한 템플스테이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아 회복을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속리산 범주사(주지 현도)도 충남교육청과 교육 현장에서 지친 교직원 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교직원 행복 힐링 연수 업무협약(MOU)’을 7월 9

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범주사는 앞으로 충북지역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참선과 108배, 예불체현, 숲길 걷기, 차담 문화체험 등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범주사 주지 현도 스님은 “범주사 힐링 프로그램이 무너지는 교편 침체 등으로 상처 입은 교사들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가 일본인 사찰?”

송정전 ‘일본인 사찰 조계사에 매각’ 안내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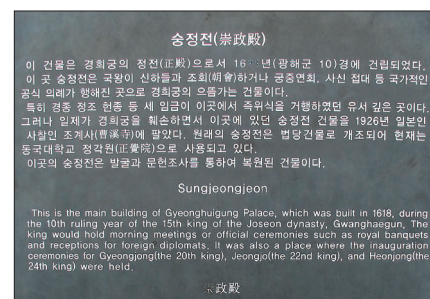
‘일제가 경희궁을 훼손하면서 1926년 송정전 건물을 일본인 사찰인 조계사(曹溪寺)에 팔았는데 현재는 동국대 정각원으로 남아있다. 현 위치 송정전은 복원된 것이다’

서울 경희궁 송정전의 안내판과 책자에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를 친일사찰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쓰여 논란이 일고 있다.

조계종 원로의원 현해 스님(월정사 회주)은 7월 8일 원로회의에서 “새로 지어진 경희궁 송정전의 안내책자에 현재 조계사를 친일사찰로 볼 수 있는 문구가 쓰여 문제”라며 해당문구의 시정을 촉구했다.

현재 조계사가 한국불교의 대명사로도 불리는 상황에서 안내판과 책자를 내외국인들이 오해할 여지가 많다는 것. 안내판의 문구 또한 당시 일본인 사찰인 남산 조계사는 “曹溪寺”임에도 현재 조계종의 ‘조계사(曹溪寺)’로 사용되고 있었다.

경희궁 송정전은 1618년 광해군 10년에 건립돼 주로 국왕이 조회를 하고, 사신 접대 등 공식행사를 했던 곳이다. 일제가 경희궁을 훼손하며 당시 남산에 자리했던 일본 조동종의 조계사 법당으로 쓰이기 위해 옮겨졌다. 현재의 종로구에 위치한



송정전 현해 안내판. 당시 일본인 사찰인 조계사는 조계사(曹溪寺)임에도 현재 조계종의 조계사(曹溪寺)로 명칭되어 조계종 조계사가 친일사찰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다.

조계사는 당시 각황사로 불렸다. 동국대 정각원 관련 논문을 쓴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조동종의 조계사(曹溪寺)와 현재 조계종의 조계사(曹溪寺)의 오류와 함께 한문을 잘 쓰지 않는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 있다. 조동종의 조계사라는 내용이 명칭되어 한다고 본다.”

〈동국대 70년사〉 등에도 이와 비슷한 오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해일 스님은 “전국 사찰의 유사사태 등을 찾아 문화재청을 통해 즉각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명상의 혁명이 틱낫한이 전하는 삶의 폭풍우를 통과하는 지혜

***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지혜의 빛을 비추며 뜨거운 감동을 준 화제작 ***

“당신은 이미 좋은 사람! 본래 모습 그대로 반짝이며 살라”

좋은 사람으로 사는 법

화제의 신간

틱낫한 | 유영란 옮김 286쪽 | 12,000원

오늘도 두려움 없이

7쇄

틱낫한 | 진우기 옮김 224쪽 | 12,000원

“당신의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깊이 보라”



아무도 당신의 두려움을 해결해줄 수 없다. 오직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가라.

죽음의 문턱부터 일상의 두려움까지, 삶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틱낫한의 따뜻하고 자비로운 인생의 가르침. 죽음이 두려운가? 혼자 남겨지는 것이 겁이 나는가? 남들의 시선이 신경쓰이는가? 매일매일 삶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도록 마음의 힘을 키워주는 틱낫한의 불꽃 같은 말씀.

마음꽃을 줍다

송광사 승가대학장 덕조스님이 불일일에서 떠온 작고도 성광 같은 깨달음의 순간들 덕조스님 지음 | 232쪽 | 12,900원

그런 깨달음은 없다

이 시대의 수행풍토에 일침을 주는 전설적인 마스터의 귀한 유지 크리슈나무르티 지음 | 김춘 옮김 | 344쪽 | 13,800원

흔적 없이 나는 새

당대 代 최고 지성인 배후 거사와 황벽 선사가 마음에 대해 묻고 답한 진리의 문답 수불스님 지음 | 604쪽 | 25,000원

이것이 깨달음이다

구도의 안개 길에서 목도한 가장 뜨거운 질문과 소박비밀이 명쾌한 해답 백창우 지음 | 800쪽 | 28,000원

수트라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부 니까야와 사이함경을 한 권으로 일목요연하게 담아낸 불교의 바이블 비구 법일 지음 | 508쪽 | 27,000원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

구름과 달과 더불어 만나는 고요한 찾자리 원학스님 지음 | 284쪽 | 18,000원



김영웅

TEL 011-656-3200 www.gimyoung.com